

전 남

# 신안군 42년만에 '압해도 시대' 열다

신안군이 42년간의 목포 더부살이에서 벗어나 압해도 시대를 열게 됐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현 목포시 북고동 청사에서 압해도 신장리 신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안군이 목포 더부살이에서 벗어나 행정구역내에 보급자리를 마련한 것은 1969년 무안군에서 신안군으로 분군(分郡)된지 42년만이다.

신청사는 2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만151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됐다. 2006년 5월 공사에 들어간 신안군 신청사는 신안조선타운과 연계 추진 등 위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7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착공 5년만에 완공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은 분군 이후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목포시 북고동에 현 청사를 마련하고 1990년대까지 증축 등을 추진했으나 낡고 비좁은 청사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목포 더부살이 탈피 군청사 신장리로 이전 25일 본격 업무 ... 낙후 지역발전 전기 마련**



신안군청 신청사 전경. 신안군은 42년의 목포시대를 마감하고 25일부터 압해도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압해시대 개막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압해대교 개통과 압해도 송공항 여객선의 입항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무안

운남과 압해도를 연결하는 운남대교의 개통과 압해도에서 압해도를 잇는 새천년대교의 추진은 신안의 교통여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전남도의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과 품격발전단지 등 민간기업 투자유치로 서남권 물류 및 해양경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유관기관들이 흠어져 문제 제기했던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압해도를 행정과 교육, 문화, 금융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한 군의 중심타운으로 개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윈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압해도 이전에 따른 일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 북항과 지도 등에서 군청사까지 셔틀버스와 시외버스를 연계 운행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의 지자체 중 행정구역 밖에 군청이 있는 곳은 인천 옹진군과 신안군뿐이다"면서 "압해도로 청사 이전은 신안군의 자존심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 '두들기니 신난다' 난타교실 인기

강진 대구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난타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대구초등학교는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방과후 수업으로 난타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권 제공>

## 완도 이어 여수도 제주 뱃길 위그선 도입 추진

**오션익스프레스 운송면허 신청 1일 3회 왕복 ... 1시간 10분 주파**

완도에 이어 여수에서도 제주까지 위그선(WIG CRAFT) 뱃길이 열린다.

여수지방해양항공청은 최근 ㈜오션익스프레스 선사가 여수항~제주 애월항간 위그선 운항을 위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 항로개설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그선은 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을 말한다. 오션익스프레스가 추진중인 위그선 규모는 50명 정원의 50t급 3척으로, 각각 1일 3회 왕복하며, 97노트(시속 180km)로 두 항구를 1시간 10분만에 주파한다.

이에 앞서 최근 완도~제주 카페리 운항 선사인 한일고속도 완도항~제주 애월항을 오가는 위그선을 내년 3월 취항하기로 하고 다음달 위그선 건조에 들어가기로 했다.

75억원을 들여 건조될 위그선은 두 항을 시속 180~200km로 40분만에 도착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여수~제주간 위그선이 취항하면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는 항로취항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그선 취항과 별도로 ㈜여수해리 선사에서 여수항~제주항 카페리 취항 사업 면허를 신청중이다. 카페리 규모는 승객 900명과 차량 100대를 싣는 5700t급으로, 1일 1회 왕복에 속도는 21노트로 5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슬로시티 증도, 차 없는 자전거 섬으로

**보관대 등 편의시설 확충 내일 파랑 자전거 전달식**

슬로시티인 신안 증도가 자동차 없는 자전거 섬으로 탈바꿈한다.

신안군은 내년까지 '1가구 1대 이상 자전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광객이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전거와 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은 증도를 자동차 없는 친환경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21일 오후에 '건강을 싣고 두 바퀴로 가는 행복'이란 주제로 갯벌공원에서 파랑 자전거 340대 전달식을 갖는다.

전달식에서는 색소폰 연주와 자전거 모기 등 축하공연, 자전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증도는 섬 전체가 평지에 가까워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고 8km 내에 주요 볼거리가 밀집돼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지난 2007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우전 해수욕장과 천년의 해송 숲, 단일면적 전국 최대인 태평염전, 모실 길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맑은 밤 별을 볼 수 있는 섬(Dark Sky), 금연의 섬 등 친환경적인 섬으로 유명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방문객이 차를 놔두고 전기 셔틀버스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증도 대교 부근에 70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차장 조성이 끝나고 자전거가 늘어나면 자동차가 없는 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 '이주여성 인턴제' 취업난 해소 도움

해남, 관내 9개 업체에 30여명 일자리 창출

해남군이 도입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사원제'가 이주여성들의 취업난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달 처음으로 도입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사원제'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주여성들이 30여명에 달한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주여성들에게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한달동안에만 취업 희망자와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해남농공단지 청국장 제조업체인 '명정식품'과 녹차가공업체인 '해록'을 비롯해 9개 중소기업에 30여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이주여성 인턴사원제가 성과를 거두는 원인은 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급여 중 30%를 군비로 지원하면서 '미스매치'(구인 기업과 구직자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인력 수급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군은 이주여성 인턴사원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에는 다문화 이해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에게도 한국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인턴사원제를 통해 취업 한 요고보리 미끼(43·해남읍)씨는 "11년전 해남으로 시집와 주부로만 지내왔는데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주여성 인턴사원제는 일자리창출과 함께 취업현장에서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문화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업체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주여성들이 청소 등 단순노동에서 벗어나 전문기술을 익혀 평생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순천기상대 승주에 신청사 준공

**1만㎡ 부지에 지상 2층**

전남 동부 내륙의 기상예보를 맡는 순천기상대가 신축 이전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에 신축한 순천기상대 청사 준공식을 21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착공한 새 청사는 1만 500여㎡ 부지에 지상 2층 건물과 관

측장소로 이뤄졌다.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에 있던 순천기상대는 2008년 10월 관측소에서 기상대로 승격해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의 동네 예보와 기상 관측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주암면의 영향으로 안개가 주변 지역보다 많이 관측되고, 내륙 지역에 인접해 순천 일부의 해양성

기후를 표준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상청은 순천과 전남 동부 내륙 기후를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지점인 승주읍으로 장소를 옮겼으며, 새 청사가 생겨 직원들이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하던 불편함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관측 자료의 질과 장비 운영을 최적화하려고 기상대를 확장·이전했다"며 "민원인의 접근도 쉬워져 더 질 높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종은기자 ejkim@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순천 700년의 꿈

**ECO GE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2013. 4. 20 ~ 10. 20 (6개월)

광주일보 창사 59주년을 축하합니다

순천시의회	순천청암대학
한국농어촌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 지사장 손태현	한국수자원공사주암면관리단 단장 김관중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재	순천의료원 원장 최갑주
순천제일대학 총장 성동제	순천청암대학 총장 강길태
순천농협 조합장 이광하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